

# 이달부터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 임의계속가입 '한직장 1년→18개월내 통산 1년' 확대 이직 잦아도 노동기간 1년 넘으면 건보료 폭탄 회피 가능

비정규직 등 단기간 노동자도 여러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을 더해 1년간 넘기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적용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내년 직장보험료보다 더 많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면서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13년 5월 도입했다.

이 제도에 가입하면 사용관계 종료 후 최대 36개월까지 직장에서 내던 가입자 부담금 수준(사용관계 종료 직전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으로 계산)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하지만 그동안은 여러 직장에서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했다라도 동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자격이 인정됐다. 단기간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선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개정안은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 기간 여러 개 사업장 근무기간을 합산해 통산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올해 4월 기준 임의계속가입자는 15만5733명으로 임의계속가입자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27만617명까지 포함하면 42만6350명이 임의계속가입 제도 혜택을 받고 있다.

개정된 법령은 7월1일 이후 퇴직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임의계속 가입

적용을 받으려면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임의계속가입 적용 요건 완화를 통해 특히 이직이 잦은 단기간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비교적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도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용을 받기 수월해질 것"이라며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재산 수준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관할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뉴스



김 교육감은 임기 첫 출근일인 2일 오전 8시 원주 이서초 통학버스에 탑승해 30여분 간 아이들의 안전한 승하차와 안전띠 착용 등을 도왔다.

## 김승환 교육감 3기 첫 업무 '아이들 안전'

### 이서초 통학차량 승하차 지도 금산초 라돈 저감 시설 등 점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직선 3기 임기 첫 업무를 아이들 안전 행거기로 시작했다.

김 교육감은 임기 첫 출근일인 2일 오전 8시 10분 원주 이서초 통학버스에 탑승해 30여분 간 아이들의 안전한 승하차와 안전띠 착용 등을 도왔다.

아이들을 태운 통학버스가 학교에 도착한 뒤에는 1학년 교실로 들어가 1교시 수업을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을 만났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도 처음 본 교육감에게 스텝 없이 질문도 하고, 손바닥도 마주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교시 수업과 함께 이서초를 나온 김 교육감은 곧바로 김제 금산초로 이동했다.

금산초 방문은 라돈 저감시설 운용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해보기 위한 것으로, 이 학교는 교육부가 지난해 실시한 실내 라돈수치

조사에서 기준치(148베크렐(Bq)/m³)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육감은 과학실 등을 돌아보며 현재 가동 중인 라돈 저감 시설(공기순환기 등)을 확인한 뒤, 학교 관계자들에게 "아이들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지난 몇 년 동안 라돈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무주 적상초의 경우에는 아예 학교를 안전한 곳으로 신축 이전했다"면서 "앞으로도 전북교육청은 라돈 저감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오늘 오후 2시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3기 전북교육 주요 정책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 교육부, 장애학생 취업지원 확대 방안 추진

장애학생 2115명에게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지원 확대 방안'을 지난 1일 발표했다. 교육부,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간 장애학생 인스톱 취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대학 내 일자리 35명, 지역사회 일자리 580명, 재정지원 일자리 1500명 등 장애학생 총 2115명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대학 내 일자리는 올해 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취업 성공사례를 발굴해 내년에 모든 대학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환경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강화와 함께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 발굴, 현장 중심 직무훈련을 실시해 장애학생의

취업 성공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역사회 일자리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연계·협력을 강화해 장애인 고용 수요가 있는 지역사회 산업체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지역사회 직업재활수행 전문기관과 함께 직업능력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일자리 제공 수요가 있는 산업체 현장에서 직무훈련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통합서비스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직업평가, 직업교육, 고용지원, 사후관리 등 인스톱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과 지역사회 사업체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뉴스



전북대는 이달 12일부터 13일까지 2일 동안 '2018년 전공체험·학과탐방·입학전형 설명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한다.

## 전북대, 고교생 초청 입학설명회 연다

### 이달 12~13일 전국 2만여 명 고교생·교사 초청 대규모 전공 체험 버스·학과탐방·모의면접 등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진로선택을 고민하는 고교생들에게 다양한 전공을 체험하도록 돕고,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 및 학과선택의 기회 제공하기 위해 전공체험 및 학과탐방, 입학전형 설명회, 모의면접 등을 다채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매년 수험생 및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전공체험 및 학과탐방, 입학전형 설명회를 실시해 온 전북대는 올해도 12일부터 13일까지 2일 동안 '2018년 전공체험·학과탐방·입학전형 설명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한다.

전북대는 이 기간 동안 전북도내·외 고교생 및 교사 등 1만 여명을 대상으로 초청, 전공체험·학과탐방과 함께 학생부종합전형에 비롯한 입시

상담, 대학 교직원(교수 및 입시담당관)과 고교 교사 간 정보교류 및 토론 등 다양한 정보제공의 자리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대 거의 모든 학부(과)가 참여하며 전담, 총담, 총부대 등 거점 국립대와 다른 전북권 대학들도 고교생들의 대학체험 행사에 참여해 열기를 더할 전망이다.

여중문 전북대 입학본부장은 "교육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진로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매년 마련하는 행사"라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도교육청, 난독 진단검사 설명회 열어

전북도교육청은 오늘 오후 3시 전주 N타워컨벤션에서 2018 읽기능력 및 난독 진단검사 설명회를 연다.

이날 설명회에는 진단검사에 참여하는 학교의 담임교사 350여명이 참석해 읽기능력 및 난독 진단검사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진단검사 세트(전문가 지침서, 검사양식 2종)를 수령하게 된다.

대상학년은 2~6학년이며 진단검사에 참여하는 학교들은 내일부터 17일 사이에 학교별 상황에 따라 해당 학생과 교사가 함께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여 진단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난독증은 대뇌 특정부위에 신경학적

원인을 가진 특정 학습장애의 하나로 지능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글자를 빠뜨리고 읽기, 뒤집어 읽기, 다른 글자로 대체해서 읽기, 아주 천천히 읽기, 쉬어가면서 읽기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난다.

읽기능력 및 난독 진단검사는 크게 단어인지, 읽기유량성, 읽기이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자모지식, 음운인식, 빠른 이름대기, 어휘지식, 듣기이해 등의 검사를 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단검사의 목적인 읽기곤란 및 난독 학생의 조기 발견과 효과적인 지원에 있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전북보조기기센터, 장애아동에게 쿨젤시트 지원

전주대(총장 이호인)가 위탁 운영하는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는 전라북도에 거주 중인 50여 명을 선정하여 유모차, 카시트 등의 보조기기에 여름철을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쿨젤 시트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쿨젤시트 지원사업은 헬스케어 전문회사 헤스테나(주)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제공되는 쿨젤시트는 무색, 무취의 무해한 화학물질인 하이스비드 소재로 내용물이 증발되거나 흘러나오지 않아 반영구적으로 사

용할 수 있다. 더운날 냉장실에 5분 정도 넣어둔 후 사용하면 오랫동안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7월 2일부터 20일까지 전라북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신장 130cm 이하의 장애 아동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접수 받으며, 7월 말부터 쿨젤시트를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www.jbat.or.kr)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로(063-220-3004)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